

# ‘코로나 확진 폭증’에 텅빈 순천 도심

### 대형마트 등 집단감염 잇따라...엿새만에 29명 확진

### 체육시설, 방역 마쳤지만 운영 무기한 중단 ‘울상’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어릴 거든 불안한 마음 뿐입니다.” 25일 오후 전남 순천 시내 곳곳은 인적이 끊겨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순천은 지난 20일 서울 방문관 매업체발 확진자 발생 이후 감염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빠르다.

코로나19 지역 누적 환자 34명 중 29명이 최근 엿새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형마트 등 상권이 밀집한 풍덕동 일대는 간혹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 3~4명이 오갈 뿐, 행인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정류장에도 승객이 없어 시내버스가 잠시 정차했다가 곧바로 출발했다.

도로 통행도 비교적 원활한 모습이었다.

확진자 방문 이후 지난 21일부터 전날까지 나흘간 일시 휴업한 뒤 이날 문을 다시 연 한 대형마트 매장은 한산한 모습이었다.

마트 관계자는 “휴업 기간 동안 수시로 방역 작업을 마쳤고, 보건소와 협의해 영업을 재개했다”며 “평일 오후 이토록 매장 손님이 뜸한 것은 드문 일이다”라고 하소연했다.

인근을 지나던 서모(53·여)씨는 “무더운 날씨까지 겹쳐서인지 평소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인데도 한산해 깜짝 놀랐다”며 “갑자기 지난 주말부터 이날까지 지

역 확진자가 대거 발생해 우울하다”고 말했다.

민모(20)씨는 “확산 속도가 빨라 걱정이 앞선다”며 “두려운 마음에 외출을 자제하고 있지만 부득이할 경우엔 인파를 피해 다닌다. 지인들과 술자리도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변 상인들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방연자실한 모습이었다.

안경 판매점 업주는 “마트·병원 등 편의시설이 많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지만, 지난 주말에는 매출이 평소의 10% 수준에 불과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엿진데 댈친 격으로 곧 다가올 대풍에 이번주 장사가 더욱 걱정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 확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를 알 수 없으니 답답하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현대전화 대리점도 상황은 비슷했다.

주인 김모(27)씨는 “인터넷 비대면 제품 주문이 크게 늘어난 반면, 직접 판매 매출은 반토막이 나 기대했던 ‘신제품 출시’ 대목은 물 건너갔다”고 울상을 지었다.

편의점 운영하는 김모(58)씨는 “그동안 순천은 코로나19 청정 지역이었는데 경기가 공공 일어붙었다. 매출이 70% 가량 급감했다”고 말했다.



25일 전남 순천시 풍덕동 대형마트 홈플러스 입구에 정상 영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 마트에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확인돼 전날까지 일시 휴업을 하고 긴급 소독을 마쳤다.

이날 확진자 방문 사실이 공개된 조례동의 한 사설 실내체육시설에도 비상이 걸렸다. 업주를 비롯한 강사들은 빗발치는 회원 문의 전화를 받느라 분주했다.

강사 유모(27·여)씨는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 때마다 전날부터 휴업 중이었다. 지난 18~20일 사이에 확진자 방문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회원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어 경찰이 방문, 역학조사에 필요한 시설 내 폐쇄회로(CC)TV 저장 장치를 회수해갔다.

보건소에서 파견한 방역 담당자도 시설 곳곳을 소독하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소독을 마친 뒤 출입구에는 ‘방역 완료’ 스티커가 부착됐다. 그러나 순천시의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은 실내 집단운동 시설에 해당, 영업을 중단된다.

체육시설 한 관계자는 운영을 무기한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방역 지원에 나선 이모(66)씨는 “시를째 숨 돌릴 틈도 없이 곳곳을 돌아다니며 방역을 하고 있다. 하루에 학교 주변·근린공원·관광공사 주변 등 15곳 가량을 순회한다”며 “더운 날씨에 방역복이 땀에 젖어 힘들지만,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확진자가 집중 발생한 청암피트니스센터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이날 오후 7시까지 팔마체육관에서 자동차 이동형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흥기로 아들 숨지게 한 어머니, 5시간만에 자수

자신의 아들을 흥기로 살해한 어머니가 경찰에 자수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6일 아들을 흥기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38·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30분께 여수시 한 도로에 차량을 세운 뒤 아들(16)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흥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범행 5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0시40분께 차량을 몰고 경찰서에 방문,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 “우울증을 앓고 있다. 학원을 마친 아들을 차량에 태운 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들 모자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세차비 시비’ 끝에 택시기사 때린 2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세차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폭행)로 A(22)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4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골목길에서 택시기사 B(31)씨를 밀치고 팔을 2차례 때린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승했던 일행 중 1명이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자, 세차비 보상 문제로 B씨와 다투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술값 빌려줘” 전 직장서 행패 부린 취객 영장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자신이 일했던 숙박업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2시에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3시간동안 소란을 운 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수차례 때릴 듯 위협하고 욕설을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1년 전 직원으로 일했던 숙박업소 업주를 상대로 ‘술값을 빌려달라’며 만류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A씨는 이후 경찰의 출석조사 요구에 불응, 3개월간 잠적했다가 지명수배됐다.

A씨는 지난 24일 북구 유흥가에서 술에 취해 또다시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검거됐다.

### 목포 바다 빠진 초등생 형제, 해경이 구조

전남 목포의 한 바다에 빠진 초등학생 형제가 해경의 발빠른 대처로 구조됐다.

25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3분 목포시 북항 노을공원 앞 해상에서 초등학교 1학년 A(7)군과 A군의 친형인 4학년 B(10)군이 물놀이 중 급류에 휩쓸렸다.

A군이 먼저 빠졌고, B군이 동생을 구하려고 수심이 깊은 곳으로 향했다가 함께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해경 북항파출소 심민준 경장, 이민우 순경은 신고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곧바로 바다에 뛰어들어 형제를 구했다.

심 경장과 이 순경은 구조 직후 의식이 없던 A군에게 10여 분간 심폐소생술을 했다.

A군은 응급 처치 후 호흡을 일부 되찾은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아 생명이 지장이 없다.

B군도 다행히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

이 형제는 같은 초등학교 학생 2명과 노을공원 샛길로 바다에 구명조끼 없이 물놀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행인의 신고로 형제를 구할 수 있었다”며 “물놀이 전후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말했다.

## 전남 의료시설 소방특별점검 무더기 적발...91곳 ‘엄정 조치’

### 156곳 대상...소방안전관리 실태 대해 중점적 점검



전남소방본부는 전남지역 의료시설을 대상으로 소방 특별점검

을 벌여 91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7월 발생한 고흥 윤호21병원 화재와 관련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도내 의료시설 156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은 주로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피난·방화시설 유지 관리 상태 등 소방안전관리 실태

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전남소방은 이번 점검 결과 30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건축법 위반 의심대상 27곳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소방시설 불량대상 84곳에 시정조치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 조치에 나섰다.

특히 화재 시 연기확산을 차단해주는 방화문의 훼손이나 피난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자에게 즉시 보완토록 조치했다.

또 의료기관 관계자에게 방화

문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감지기와 연동해 화재 시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힐 수 있는 자동폐쇄장치 설치를 적극 권고했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소방 특별점검을 통해 화재 발생 시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화재예방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